

부 고

마리아 루이즈 MARIA LUISE 수녀

마리아 게르트루드 오스트롭 Maria Gertrud OSTROP

ND 4242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30 년 8 월 21 일 겔젠키르헨-뷔어
서 원: 1953 년 4 월 9 일 물하우젠
사 망: 2026 년 10 월 17 일 물하우젠, 하우스 살투스
장 례: 2026 년 10 월 26 일 물하우젠, 수녀원 묘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오 18,2

마리아 루이즈 수녀는 프란츠와 마틸데 오스트롭 부부의 11 남매 중 일곱째 딸이었다. 1937 년부터 1941 년까지 마리아는 고향인 폴숨(레클링하우젠 지역)의 가톨릭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이후 1944 년 폐교될 때까지 도르스텐의 우슬린 고등학교에 다녔다.

전쟁이 끝난 후, 마를의 직업학교에 다녔으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마리아는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겔덴의 농촌 여성 학교에서 가정 경제 기술을 더 익혔다.

1951 년, 마리아는 우리 수녀회에서 수련 생활을 시작했고, 마리아 루이즈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첫 서원을 마친 후에는 물하우젠-외트의 유치원 교사 양성 대학에서 유치원 교사 및 방과 후 돌봄 교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그 후 뒤스부르크 지역에서 수십 년에 걸친 사도직 활동을 시작했으며, 거의 40 년 동안 뒤스부르크-함본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유치원을 이끌었다. 유치원 창립 35 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간행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오스타커(함본의 한 동네) 주민 대다수가 수녀를 알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거의 모든 아이들이 수녀의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이다. 수녀는 유치원의 교사 및 보조 교사들과 협력하며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헌신해 왔다. 유치원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교육적·종교적 노력이 기울여지는지 잘 알고 있다. 학부모들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자녀들을 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한다. 마리아 루이즈 수녀는 수도자이며,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항상 헌신해 온 노틀담 수녀회 소속이다. 마리아 루이즈 수녀는 자신의 경건함과 오스타커 주민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해 왔다. (...) 마리아 루이즈 수녀가 오스타커에 변함없이 충실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지역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유치원 사도직에서 은퇴한 후에는 새로운 봉사 분야로 발을 옮겨 뒤스부르크-루어오르트에 있는 세 곳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사도직 활동을 시작했다. 수녀의 친절하고 배려심 깊으며 열린 태도는 유치원과 방과 후 돌봄 센터에서의 교육 활동은 물론,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리아 루이즈 수녀는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데 매우 능숙했으며, 행사 현장 한가운데서 직접 활동하곤 했다.

마리아 루이즈 수녀가 소속되어 있던 뒤스부르크-라르의 수녀원이 폐쇄된 후, 뮌헨글라드바흐의 우리 공동체로 옮겨 지내다가, 2014 년에 물하우젠의 하우스 살투스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세심한 배려와 친절함으로 이곳 공동체에 최선을 다해 기여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공동체 생활과 미사, 사교 활동에 참여했다.

수녀가 세상을 떠난 날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필립 3,20)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리아 루이즈 수녀가 하느님과 함께 계신 고향에 도착했음을 안다.